



대한민국 대전환
한국판뉴딜
내 삶을 바꾸는
규제혁신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 연 준(02-2100-2950)	담 당 자	권나림 사무관(02-2100-2954)
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박 주 영(02-2100-2530)		박정원 서기관(02-2100-2533)
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	홍상준 사무관(02-2100-2661) 현지은 사무관(02-2100-2668)

**제 목 :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업계
관계자들을 만나 은행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.**

- ◆ 10월 28일(목), **고승범 금융위원장은** 은행장, 유관기관 등 **은행 업계와** 취임 후 **첫 간담회**를 가지고 **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방안**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- 금융위원장은 ①**은행업의 디지털 전환**을 통해 은행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,
- ②**비즈니스 모델** 혁신을 위해 신탁업·투자자문업, 플랫폼 사업 등 **은행의 경영·부수업무를 확대**를 검토하며,
- ③**공정한 경쟁**에 기반한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빅테크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- ◆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**신사업투자 활성화, 플랫폼 경쟁력 확보,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**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,
-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**적극적으로 지원**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
1 간담회 개요

- '21.10.28일,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장, 유관기관 등 은행업계와의 첫 간담회에 참석하여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
- 일시 / 장소 : '21.10.28. (목) 10:30~11:30 / 은행연 14층 중회의실
- 참석 : 【금융위원】 금융위원장, 금융산업국장, 금융혁신기획단장, 김종민 부원장
【은행】 신한은행장(진옥동), 국민은행장(허인), 우리은행장(권광석), 하나은행장(박성호), 농협은행장(권준학), 대구은행장(임성훈), 케이뱅크 대표(서호성)
【유관기관·전문가】 은행연합회장(김광수), 금융결제원장(김학수), 금융연구원장(박종규), 금융연구원 이병윤 박사, BCG 김윤주 파트너

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(※ 모두발언 별첨)

-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경제·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, 은행 등 금융산업도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,
 - 모바일·비대면 금융거래 증가, 금융서비스의 언변들링 및 리변들링, 금융산업의 플랫폼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,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진출 확대로 경쟁구도도 변하고 있어,
 -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.
- 고 위원장은 은행산업의 발전방향으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.



- ① 은행의 **디지털 전환**을 위한 **변화**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,
 - 금융그룹이 하나의 **수퍼앱**을 통해 은행·보험·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“**디지털 유니버설 뱅크**”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,
 - 망분리 합리화 및 금융·비금융 정보공유 **활성화**를 검토하는 한편, 은행의 디지털 신사업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 - ②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**비즈니스 모델**을 **혁신**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·부수 업무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언급하면서,
 - 은행이 “**종합자산관리자**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되어 있던 **투자자문업**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,
 -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**플랫폼 사업** 등에 대하여 사업 성과와 환경변화 등을 살펴보고, 은행의 **부수업무를 합리적인 수준**으로 **확대**하겠다고 하였습니다.
 - ③ **공정한 경쟁**에 기반한 금융혁신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
 - 정부는 **공정한 경쟁환경**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.
-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**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**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,
- **은행권 간담회**를 시작으로 여타 금융업권과도 만나 **금융산업 발전방안**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
3 전문가 발제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

- **금융연구원**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언하였습니다.
 - 최근 은행의 각종 경영지표는 안정적이나 핀테크·빅테크의 진출 등 경쟁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
 -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은행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“동일기능-동일규제” 원칙에 따른 영업행위규제 정비와 함께,
 -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기반 마련, 유연한 부수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.
- **보스턴컨설팅그룹(BCG)** 김윤주 파트너는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들의 미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.
 - 플랫폼 2.0 시대에는 메가플랫폼이 아니라도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플랫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, 금융플랫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,
 - 메타버스 시대로의 발전에 따라 분산원장기술(DLT) 방식의 탈중앙화된 금융시스템(De-Fi)이 확산되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사업화, 기술 측면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.
 - 은행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❶미래형 사업-운영 모델 구축과 ❷고객 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습니다.
- **금융결제원** 김학수 원장은 은행 업무를 주요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별로 스폴라이센스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면서, 결제 분야의 스폴라이센스 도입을 우선 검토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.

- **은행연합회** 김광수 회장은 은행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“디지털 유니버설 뱅크”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,
- **은행업권**에서도 겸영·부수업무 범위 확대, 신사업 출자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고, 금융당국에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.
- **고승범 금융위원장**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고 답하면서,
 - 향후에도 항상 업권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【 별첨 】 금융위원장 모두발언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<small>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</small>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<small>합법관리청 콜센터</small>
--	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